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9월 7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사회적경제과	담 당 자	• 사회적기업팀장 최경선 ☎440-4971 • 담당자 양승정 ☎440-4972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나서...추가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118명), 재정지원사업(2억9천300만원) 추가 지원 -
- 2021년 총 296명, 14억3천100만원 지원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1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118명의 일자리창출사업과 2억9천300만원 재정지원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는 2021년에 총 일자리창출사업에 296명을 지원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14억3천1백만을 지원하게 됐다.

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21일까지의 모집기간 중 신청·접수한 46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와 사회적기업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완료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예비사회적기업 23명, 인증사회적기업 95명을 선정했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는 예비사회적기업 1억1천200만원, 인증사회적기업 1억7천400만원, 사회적 협동조합 700만원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약정 체결 기간(1년) 동안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지역 자용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따라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과 계속고용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받게 되며,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은 신청한 총 사업비의 10% 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자부담 비율을 유지해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커 앞으로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